

한국 교육 수준 OECD 1위인데… 고용·임금은 평균 이하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71.1%
고용률은 39개국 중 36위로 하위
교육 수준-노동시장 성과 간극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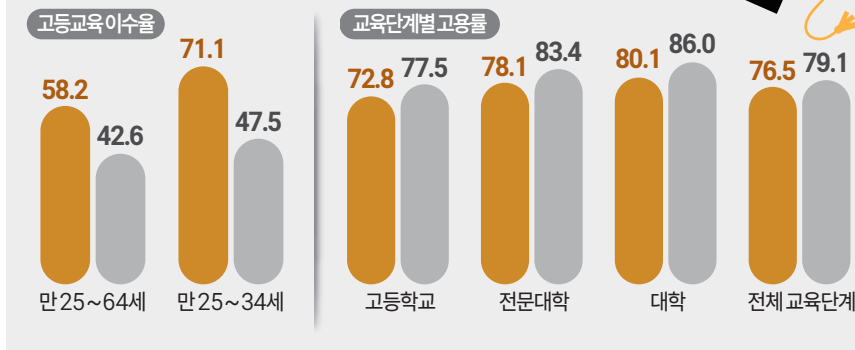
한국 청년 10명 중 7명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있지만,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는 학력 수준만큼의 이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과 학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모두 OECD 평균을 밑돌면서, 높은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간극이 다시 확인됐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KEDI)이 'OECD 교육지표 2026'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 등 50개국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학생·교원 현황, 교육 참여 및 성과 등을 비교했다.

◆10명 중 7명 고학력…OECD 1위

지난해 만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

고등교육 이수율과 교육단계별 고용률

2025년 기준. 한국 OECD 평균 단위: %



장 높았다. OECD 평균(47.5%)을 23.6%포인트(p) 웃돌았으며, 전년(70.6%)보다도 0.5%p 올랐다. 캐나다(67.7%), 아일랜드(66.8%)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2020년 69.8%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OECD 1위를 이어왔다.

성인 전체 고등교육 이수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만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2%로 전년(56.2%)보다 2.0%p 상승했다. OECD 평균 42.6%와 비교하면 15.6%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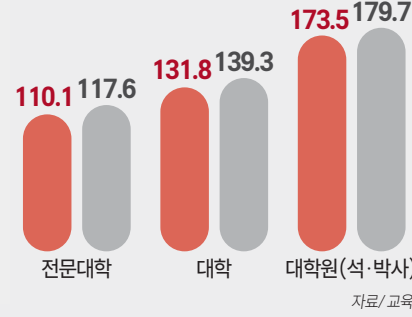
학력 분포는 학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 25~34세 가운데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비중은 49.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2위였다. 석사 학위 이상은 3.2%에 그쳐 OECD 평균 16%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고용률, 국제 평균 이하

고용 성과는 이수율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만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5.9%p 낮았고, 순위는 조사 대상 39개

교육단계별 임금

한국 OECD 평균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 2024년 기준



국 가운데 36위였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78.1%로 OECD 평균 83.4%보다 낮았다. 전체 교육단계를 합친 고용률은 전년 대비 0.4%p 오른 76.5%였지만, OECD 평균(79.1%)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률은 72.8%, 전문대학 졸업자는 78.1%, 대학 졸업자는 80.1%였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확인됐지만, 각 교육단계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고학력 청년의 비경제활동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경제활동률은 16.8%로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였다.

◆교육 수준 높는데 임금은 낮은 편

높은 교육 수준에 비해 학력에 따른 임금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교육 수준별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상대임금을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임금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024년 기준 상대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10.1, 대학 졸업자 131.8, 대학원 졸업자 173.5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각각 117.6, 139.3, 179.7로 한국보다 높았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다. 만 25~34세 대학 학사 학위자의 상대임금은 114로,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14%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OECD 평균은 131로 같은 연령대 학사 학위자의 임금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31% 높았다.

/김수정 기자

krcystal@metroseoul.co.kr



논술 경쟁률 48대 1… 수시 지원자 절반 몰려

대학 평균 경쟁률 전년비 4.7p 올라
시립대·성신여대 등 내일부터 시험

주말부터 수시 논술고사가 시작된다. 논술전형 평균 경쟁률이 48대 1을 넘어선 가운데, 수시 일반전형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논술전형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결시 여부가 실제 경쟁 구도를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44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43.45대 1)보다 4.69포인트(p) 오른 48.14대 1로 집계됐다. 모집인원 1만 2723명에 61만 2510명이 지원했으며, 이는 수시 전체 지원자의 54.1%에 해당한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 인원을 합친 비중(45.9%)과 비교하면 논술전형으로 지원자가 크게 쏠린 셈이다.

지원자가 몰리는 배경에는 학생부 성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꼽힌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올해는 N수생 증가와 현행 입시 체제 마지막 해라는 특수성이 맞물려 이러한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장의 모습.

/뉴스시스

시험 시점에 따라 서로 경쟁률에 차이를 보였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수능 이후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수능 이전에 시험을 치르는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시 업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논술전형의 실제 경쟁률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꼽는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빠지면서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7학년도 논술고사는 오는 3~4일 서울시립대·성신여대·홍익대를 시작으로 10일 연세대, 11일 가톨릭대(의·약학 제외)

와 중앙대(창의형)가 시험을 치른다. 연세대(미래)·울지대·단국대·상명대·서경대도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시행한다. 이 가운데 상명대·서경대·울지대는 국어와 수학의 단답형·서술형 문제를 내는 악술형 논술이다.

수능(11월 19일) 이후 첫 주말인 11월 21~22일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14개 대학, 이어 28~29일에는 경북대·부산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일반) 등 15개 대학 논술고사가 예정돼 있다. 12월 6일 국민대·아주대·인하대 시험을 끝으로 올해 논술고사 일정은 마무리된다.

/김수정 기자

학교 소통 문화 만든다… ‘마음동행’ 운영

교육부, 교육공동체 참여 행사
영상 제작·학부모 정책 제안 등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학교생활의 경험을 나누는 참여 행사가 열린다. 자율 규약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것부터 정책 제안 공모전까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학교 마음동행’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국 학교 자랑’은 학교와 가정의 함께 정한 자율 규약을 실제 학교생활에서 실천한 사례를 공유한다.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학교의 자율 규약 체결 내용과 실천 사례 등을 소개하면 된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20개 학교에는 간식 상자를 제공한다.

‘마음동행 함께읽기’는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10월과 11월 진행된다. 참가자는 추천 도서를 읽은 뒤 인상 깊은 구절이나 감상평, 독서 인증 사진 등을 함께 학교 누리집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학교별 독서 활동과 인증 내용에 따라 ‘다독상’과 ‘마음상’을 선정한다.

함께 100초 영상 공모전도 연다.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학급 별로 10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자율 규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담거나 소통과 협력을 보여주는 영상, 주제에 맞는 뮤직비디오 형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출품하는 방식이다. 영상은 SNS에 게시한 뒤 다음 달 31일까지 함께학교 누리집에 연결 주소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작에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함께학교상’ 15개 작품에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마음동행상’ 35개 작품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각각 제공된다.

/김수정 기자

국립의전원 남원에 동지… 2029년 개교

복지부 설립준비위, 소재지 확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들어선다. 정부가 2018년 남원을 설립 지역으로 정한 지 8년여 만에 캠퍼스 위치를 확정하면서 2029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설립준비위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의전원 소재지로 결정했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 운영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한다. 2029년 개교 후 2030년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한다. 학생들

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약물정책, 국제보건 등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공공의료 현장 중심으로 구성한다. 국가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과목을 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임상·교육실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전원 졸업생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때는 해당 기간 전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정부는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에도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서울교육청, 일드프랑스교육청과 MOU 갱신

‘디지털·AI교육’ 협력 확대

서울시교육청과 일드프랑스교육청이 디지털·AI 기반 교육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드프랑스교육청과 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처음 체결한 업무협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양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생 간 온라

인 및 대면 교류 ▲학교 간 국제자매결연 ▲교육교류 대표단 방문 및 운영 지원 ▲교육행정·정책 분야 정보와 경험 공유 ▲디지털·AI 교육 및 직업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교사 연수와 교류, 교육 교류 대표단 방문 지원, 상대국 언어교육 등도 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프랑스 학교와의 국제 공동 수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과 프랑스 간 국제공동수업에는 서울 초·중·고 16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8개

교는 일드프랑스 소재 학교와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 관계를 이어가며 서울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배우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파리에서 유럽권 한국어채택교 교원 6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 13개국에서 참여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법과 에듀테크 활용법 등을 공유하고 각국의 교육 경험과 수업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